

NEWS

국내 뉴스

KHP 절충교역 기술지원협정서 체결

지난 5월 2일,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사업단이 KHP 절충교역 프로그램으로 '틸트로터 비행제어 기술'을 전수받기 위한 기술지원협정서(TAA)를 유로콥터사와 체결하였다. 이번 기술전수 교육은 유로콥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Eurotilt' 유인 틸트로터 항공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아 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무인 틸트로터 항공기 개발에 활용하고 더불어 유인틸트로터 항공기의 제어시스템 기본설계 기술을 사전 확보하고자 함이다.

기술전수교육은 24주(6개월주) 동안 3회에 걸쳐 Eurocopter 현지에서 진행된다. 2008년



5~6월의 1차 교육에는 KARI 스마트무인기사업단의 유창선 책임을 비롯하여 항공사업단 1인, ADD 1인, LIG넥스원 1인 등 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내년 5~6월의 2차 교육에는 KARI 스마트무인기사업단 강영신 선임을 비롯하여 항공

사업단 1인, ADD 1인, LIG넥스원 1인 등 4명이, 내년 9~10월의 3차 교육에는 KARI 스마트무인기사업단 박범진 선임을 비롯하여 항공사업단 1인, ADD 1인, LIG넥스원 1인 등 4명이 참가한다.

현재 우리 사업단의 유창선 책임은 2008년 5월 12일부터 10주에 걸쳐 틸트로터 헬기 및 천이모드, 틸트로터 비행기모드 및 새로운 틸트로터 항공기모델 설계, 평가 등에 관련된 1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유로콥터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EUROTILT 항공기 형상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FLIGHTLAB / MATLAB / SIMULINK를 이용하여 제어기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KAI,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지난 5월 23일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센터(센터장이재화)는 KAI에 국방품질경영시스템(KDS 0050-9000)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은 군수업체의 품질보증 기반구축을 통한 군수품의 신뢰성 향상과 정부의 효율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목적으로 2002년 7월에

제정하였으며, KAI는 2003년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후관리 심사와 3년마다 갱신심사를 통하여 인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번 인증은 2005년에 이어 2번째 갱신을 한 것으로 군수항공기

부분에 품질보증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주)엘림시스, 우크라이나 OMEGA사와 COSPAS-SARSAT 해외 인증시험 MOU 체결

2007년도 항공 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항공기 탑재용 비상 위치 송신기(ELT)'를 개발 중인 (주)엘림시스가 지난 4월 10일자로 우크라이나 COSPAS-SARSAT 인증시험 기관인 OMEGA사를 방문, 형식증명을 취득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 인증시험 실시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동 과제의 개발책임자인 정도희 박사와 오메가사의

Bogdanovich 연구소 책임자간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수출용 국내 고유 모델로 개발되는 하이브리드형 ELT 인증의 조기 취득을 위한 유효성 높은 상호 역할 분담과 시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아울러 동사는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기술교류도 캐나다 CRC기관과도 추진 중에 있다.



대한항공, 美 육군 AH-64D 아파치 공격헬기 창정비 나서

대한항공이 세계 최강 공격헬기인 미 육군 AH-64D 아파치 헬기의 창정비에 본격 나선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19일 항공우주사업본부 부산 테크센터에서 조항진 부사장과 미 육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H-64D 아파치 롱보우 헬기 창정비 사업 1번기 입고 행사를 가졌다.

창정비란 일정 기간 군용기를 정비 시설에 입고해 주요 장착물의 완전 분해 수리와 방부처리, 성능점검 그리고 비행시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입고한 AH-64D 헬기는 지난 2007년 10월 대한항공이 미 육군으로부터 AH-64D, CH-47, UH-60 등 세 가지 기종의 헬기에 대한 창정비 및 개조 사업권을 한꺼번에 따낸 데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UH-

60 헬기의 개조 작업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정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AH-64D 아파치 헬기는 국내 최초로 창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기종으로 AH-1코브라 헬기의 대체 기종으로 배치된 미 육군의 최첨단 공격헬기이다. AH-64D 아파치 헬기는 주회전 날개 위에 동형의 화력통제레이더(FCR, Fire Control Radar)가 위치해 있어서 항공기 동체를

노출시키지 않고도 적 탐지 및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최첨단 센서와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미 육군 헬기 창정비 및 개조 사업은 대한항공의 군용기 정비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미 육군의 헬기 수명연장 및 성능개량 사업에서 최상의 파트너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군 500MD 수명연장 및 UH-60 성능개량 사업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군용기 종합 정비창으로서, 지난 1978년 군용기 정비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국군과 미군으로부터 F-4/F-15/F-16 전투기, A-10 공격기, C-123/C-130 수송기, P-3C 초계기, CH-47/CH-53/UH-60/AH-1 헬기 등 각종 군용기 3천여대를 정비 및 성능개량 했다.

국토해양부, 초고유가 극복을 위한 항공유류 절감 대책 시행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부의 대 국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난 6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과 항공업계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비행연료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항공기 이착륙 시 주기장/활주로 간 지상이동경로를 최적화하고, 항공기가 활주소에

서 머무르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여 착륙 항공기간 간격을 줄여 연간 약 227억여 원의 연료를 절감하는 "지상이동동선"과 "활주로 점유시간 감축방안"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미 제7공군과 협의하여 인천 및 김포공항 주변의 불합리한 공역구조를 대폭 개선, 항로거리를 단축하여, 연간 약 540억 원의 비행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인천/김포공항 입출항로 단축 방안"도 6월 20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항공기의 비행연료를 감소하면서도 소음 및 배출가스도 감소할 수 있는 연속강하접근(CDA)과 같은 최신행법을 비행에 적용하여 연간 약 127억 원의 연료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 시행하여 전체적으로 연간 약 900억 원의 연료절감효과를 항공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기술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항공사 및 관련 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연(연)간 인력공동 활용 본격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백홍열, 이하 항우연)과 한국기계연구원(원장 황경현, 이하 기계연)이 지난 5월 22일 항우연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항우연과 기계연간 인력공동 활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은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하고 양 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연구개발사

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및 인력의 상호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기존 협동 및 위탁연구를 통한 교류와는 달리 항우연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기계연구원 인력이 참여하고, 기계연이 추진사업에 항우연 인력이 직접 참여 등 기관간 벽을 허

무는 실질적인 인적교류를 실현할 수 있다.

항우연과 기계연은 이번 협정체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항우연은 연구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인력공동활용 확대를 위해 타 출연(연)과 협력협정의 협력대상과 범위를 보다 넓혀 대학 및 산업체에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